

# 쓰기와 읽기

나영균

영문학자 · 이화여대 명예교수

나는 요즘 남편 사무실에 날마다 출근한다. 학교에 나가던 때보다 더 부지런히 나간다. 명색은 남편의 일을 돕는 것으로 돼 있지만 주로 내 일을 한다. 일이라는 것은 언제나 쓰기 아니면 읽기다. 학교에서 은퇴한 뒤로 장편소설 한권을 번역하고 네권을 썼다. 그 가운데 번역을 포함한 세권의 책은 출판이 됐고, 한권은 내년 봄에 출판될 예정이지만 한권은 그대로 잠겨 있다. IMF 때문에 출판사가 어려워져 기획이 중단된 것이다.

책을 쓰면 출판돼야 물론 좋다. 그렇지만 안돼도 할 수 없다. 제임스 조이스는 자타가 공인하는 천재적 작가지만 《더블린 사람들》을 출판하는 데 10년이 걸렸다. 출판사에서 이 소설집에 실린 이야기가 불온하다고 트집을 잡았기 때문이다. 조이스는 뜯어고치기를 거부하다가 마침내 안된다는 부분을 조금씩 손질했다. 지금 보면 문제될 것도 없어 보이는 대목을 그때는 이리저리 트집 잡힌 것이다. 그는 그것뿐 아니라 작품마다 어려움을 겪었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몇년에 걸쳐 《에고이스트》라는 영국 잡지에 연재됐으나 막상 단행본으로 나온 것은 미국에서였고 《율리시스》는 프랑스에서 초판이 나왔다.

그런가 하면 걸작이라고 다 독자들의 반응이 좋은 것도 아니다. 《율리시스》는 문학가들 사이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었으나 사회 일부에서는 종교를 모독하고 외설스럽다는 비난을 받았다. D. H. 로렌스의 《채털레이 부인의 사랑》도 처음에 작가가 쓴 대로 나왔다가 검열에 걸려 판금령이 내린 후 일부가 점자로 나오자, 사람들은 점자로 나온 부분만을 찾아내 읽는 소동을 빚었다.

판금령은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낸다. 우리나라에서도 모교수의 책이 판매금지되자 책장사들은 그의 책을 사들이고 카운터 밑에 숨겨놓고 팔기 시작했다. 그것도 못산 사람들은 빌려봤다. 이런 경우 사람들의 인심은 그럴 수 없이 후하다. 그렇다고 판금되는 책이 모두 걸작은 아니다. 그 가운데는 판금만 안됐어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을 그런 책도 있다.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다.

그러나 세상은 달라지고 이제 금기가 없어져 버렸다. 한구석에서 안된다고 막아봐야 비디오나 컴퓨터를 통해 붓물처럼 들어오는 정보의 홍수를 손바닥으로 막으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럴 때 사람들은 지구가 그렇듯 쓰레기 같은 정보로부터의 자정능력을 가져야 한다.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일 게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능력이 정보만큼 크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자연 선택이 필요하다.

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 흔히 생각하듯이 다 훌륭한 것만은 아니다. 만화만 보는 이도 있고, 탐정소설만 읽는 이도 있고, 음란물만 읽는 이도 있다. 책은 오락물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책을 읽는 행위는 혼자만의 것이기에 무엇을 읽느냐는 거의 실존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남은 알지도 못하려니와 알 수도 없는 것이다.

하기야 무얼 읽든지 남이 간여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책의 선택은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허술할 할 수 없는 일이다. 한권의 책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거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 그런 책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

## 알림

### 다음호부터 새 판형으로 바꿉니다

《출판저널》이 창간 12주년을 맞아 다음호인 제262호(99년 7월 20일자)부터 국배판형(64쪽)으로 새롭게 단장합니다. 제호와 표지 본문 편집디자인은 물론 기획에서도 독자 대중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대중적인 판형에 걸맞은 친근한 기사, 더욱 고급한 서평, 독자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마당도 준비합니다. 《출판저널》의 새로운 출발에 애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

초점	2	상반기 문학 · 인문교양 시장의 흐름	- 최재봉 여성작가들 각축, 새로운 정치이념 모색
쟁점	4	“공자가 꼭 죽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함”	- 홍원식 김경일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를 읽고
집중취재	5	‘독자의 눈’ 무시한 한 소설	
여름기획/에세이	6	미얀마에서 읽은 《와일드 스완스》	- 한비아 깊이 있고 알뜰한 정보 <레츠고>시리즈 - 송상용
	7	영월 거문리와 안도현의 《사진첩》	- 김원 운주사와 요헨 힐트만의 《미륵》 - 신현림
여름기획/추리문학	8	그림으로 보는 추리문학의 계보	
만화	9	책과 오락장	- 박시백
특집/말 그리고 문자	10	언어 · 문자는 인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 고종석
	11	책으로 보는 문자의 역사	
	12	언어는 이데올로기와 어떤 영향관계에 있는가	- 진중권
	13	그림으로 보는 세계의 특수한 문자	
	14	컴퓨터와 인간의 의사소통은 가능한가	- 이인식
	15	세계 공용의 언어는 가능한가	- 정과리
	16	미술적 힘 꿈꾼 우리의 구술세계	- 김태준 인간과 친화성 높은 구술언어 - 임명진
출판취재	18	정보와 교양 두루 갖춘 품격 높은 여행서	- 최성일
	19	가려운 곳 긁어주는 다양한 영어학습서	- 박철준
희제의 출간	20	신복룡 외 역주 <한말 외국인 기록> 시리즈	위승희 · 김정란 음반시집 <사이렌 사이키>
특별기획	22	새로운 세계관의 발견	- 임경순 21세기에도 빛날 20세기의 고전 9 외국과학편 <마지막학>
가상대담	24	조선후기 사회적 병폐 치료를 위한 글쓰기	- 허경진 연암 박지원과의 대화
마케팅캠프	26	목표독자에게 차별적 가치를	- 한기호
출판계 소식	27	제20회 출판경영자 세미나 · 외	
서평	28	허영환 <동양미의 탐구>	- 박낙규 울프 외 <의학 철학> - 황상익
	29	김봉희 <한국개화기 서적문화 연구>	- 강철주
	30	서정복 <프랑스혁명과 베르타랑 비레르>	- 김용자 강원택 외 <유럽의 부활> - 유관무
	31	리프킨 <바이오테크 시대>	- 홍영남
이 책 그 사람	32	<희망의 발을 일구는 사람들> 펴낸 안철환씨	<베란다에 있는 풍경> 펴낸 이옥순씨
	33	<두브로브니크는 그날도 눈부셨다> 펴낸 권삼운씨	<운보 김기창 예술론 연구> · 외 펴낸 최병식씨
	34	새책 속으로 / 38 새로 나온 책 / 48 독서퍼즐	

표지/세계의 문자  
(문자의 역사)(시공사), 《세계의 문자》(범우사) 중에서.